

춘천시 '어르신·선한 이웃 촘촘 돌봄망' 주목



이재수 춘천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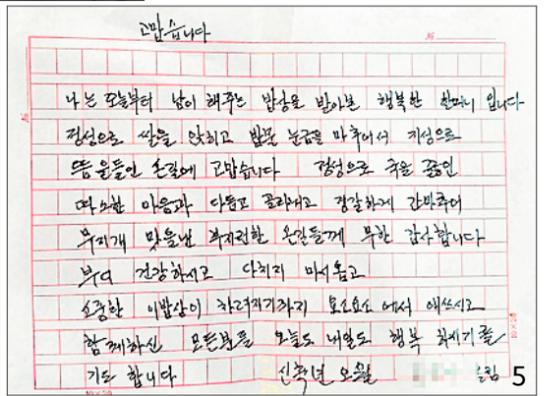
춘천시가 노인과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한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를 벌여 주목받고 있다. 춘천시는 '돌봄으로 함께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주민복지개편추진단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됐다. 이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학계, 전문가 자문과 협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마을 단위 복지 플랫폼을 잘 구축한 모범 사례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우선 '선한 이웃 마을돌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 관점의 각 읍면동 마을 단위에서 공공서비스를 혁신, 공동체가 협력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크게 마을돌봄 인프라 구축과 공공

서비스 강화, 생활권역 마을돌봄 시행으로 나눠 단계별로 이행 중이다. 인프라 강화를 위해 복지직 68명, 간호직 30명 등 총 98명의 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모든 읍면동에 방문복지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주민들이 가까운 이웃의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는 선한 이웃 프로젝트는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383건의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지원했다. 전문가 양성 등 원활한 사업을 위해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와 전국 처음으로 공무원 및 협력 기관 인력에 통합전문 과정을 신설, 모두 50시간씩 교육을 마쳤다. 생활권역 마을돌봄 실행을 위한 '마을복지 플랫폼'은 행정과 협력을 통해 삶의 현장인 마을의 생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을 지원하는 춘천형 협력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주민의 지역복지리더 양성과 마을의 미래를 고민할 25개 마을복지계획단을 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르신을 위한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눈길을



1 마을복지계획단 발대식
2 노인 도움 콜센터 일러스트
3 친환경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도시락
4 마을복지계획단 워크숍
5 도시락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의 감사 편지



1

관다.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업해 보건, 의료, 주거, 요양, 재가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7월 말을 기준으로 춘천지역에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18%(5만1천 783명), 내년에는 20%를 넘어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2031년에는 28%, 2036년에는 32%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듯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어남에 따라 돌봄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은 춘천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지만 이에 대한 해결 방식이 일반적으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에 머무르는 측면이 있다. 이에 춘천시는 더욱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돌봄서비스 방식으로 정책과 내용을 현실화했다. 먼저 남부와 북부에 통합돌봄 전달조직을 신설했다. 요양, 생활지원, 보건의료, 주거분야의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호 협업하고 돌봄대상자 선정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통합돌봄본부 돌봄회의를 통해 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은 친환경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생활(도시락)을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방문 진료, 퇴원환자에게 일시적인 돌봄공간을 제공하는 퇴원환자 일시 돌봄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또 어르신의 외출 활동에 서비스 제공 인력이 동행해 이동지원 및 업무보조 등을 해주는 동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거환경의 안전성과 일상생활의 자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택 개조도 지원하고 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수시 방문형 통합 재가 서비스를 통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들의 감동 편지가 쇄도하는 이 서비스는 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 배송자들은 주 5일씩 각 가정에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면서 어르신의 균형 잡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돕고 있다. 한편주 복지국장은 "앞으로 이웃이 주도하는 돌봄체계를 행정체계와 연계하고 좀 더 촘촘한 돌봄망을 완성해 이웃이 있어 행복한 나눔의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